

식약처, 20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 통계 발표

- 자외선차단제 심사가 가장 많았으며, 염모제 심사 건수 대폭 증가
- '24년 기능성화장품 964건 심사, '23년 대비 20건(2.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 통계를 확인한 결과 자외선차단제 심사가 가장 많았으며, 염모제 심사 건수가 '23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 '23년 52건 → '24년 166건

'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964건(제조 760건, 수입 204건)으로 '23년(944건) 대비 20건(2.1%) 증가했으며, 자외선차단제(321건), 염모제(166건), 삼중기능성(미백·주름·자외선차단)(158건),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72건) 순이었다.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자외선차단제 심사가 단일 기능성 제품 중 약 46.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꾸준히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품목의 제형을 살펴보면, 액상, 로션, 크림 외에도 하이드로겔, 쿠션, 이층상(다층상)*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었다.

* 한 제품에 유상이나 수상 성분 등이 함께 있어 2개 이상으로 층이 분리된 제형

참고로 2024년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피부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염모제 등이었다.

* 신규 주성분 ('22년) 15건 → ('23년) 13건 → ('24년) 12건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가 제품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화장품 정책정보
→ 화장품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달환 (043-719-3600)
		담당자	연구관	윤경은 (043-719-3602)



☐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건수

구분	제조	수입	총 계
품목수	760	204	964

☐ 기능성 효능별 심사 비율

구분	기능성	심사 건수					
		22년		23년		2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단일 기능성	미백	17	13	20	17	21	10
	주름개선	20	13	16	10	19	16
	자외선차단	176	190	192	150	169	152
	염모(탈염·탈색 포함)	39	29	29	23	143	23
	제모(체모의 제거)	0	1	0	0	0	0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	17	46	72	59	32	40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	26	30	24	24	23	20
	피부장벽	3	6	11	12	5	10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	1	1	2	3	1	1
	소 계	299	329	366	298	413	272
이중 기능성	미백+주름개선	76	46	36	24	31	34
	미백+자외선	14	12	18	12	12	9
	주름개선+자외선	15	18	12	14	16	5
	자외선+피부장벽	-	-	-	-	-	1
	소 계	105	76	66	50	59	49
삼중 기능성	미백+주름개선+자외선	81	84	92	67	93	65
	미백+주름개선+피부장벽	-	-	-	2	-	1
	소계	81	84	92	69	93	66
사중 기능성	미백+주름개선+자외선+피부장벽	-	-	-	3	7	5
총 계		485	489	524	420	572	392